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년 동안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 이 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등과 같은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이다.

지금의 자유와 번영은 보수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좌익들의 교육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세계가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동경하는 무리들이 무척 늘어난 상태이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말만 하면 극우라고 한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의 원천

이런 가운데 보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 “보수는 수구 꼴통이다.” 수구란 말 자체는 옛 것을 고수한다는 것으로 좋지 않은 말로 쓰인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등은 수구 꼴통이 아니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다. 보수주의: 온고이지신,

이승만: 조선 시대의 유교 질서 완전 타파,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헌법 마련

이승만보다 더 많이 여행하고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그는 심지어 구원받아 영원한 세계까지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분이다. 가장 큰 진보주의자

박정희: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박정희만큼 국가 개조, 국민 개조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5000년 역사 동안의 패배주의를 극복해서 전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국가를 만든 인물, 가장 큰 진보 누가 수구 꼴통인가? 김일성과 그의 후예들, 김정일, 김정은 등 이미 몰라간 공산주의 체제 옹호 대한민국 집권 세력의 많은 사람들: 완전 수구 꼴통이다. 다 망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북한의 고통받는 대중은 외면하고 김정은이만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세계 외교 무대에 나가면 왕따, 혼밥,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한물간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동경하고 거기로 끌고 가는가?

그런데 왜 국민들이 이런 체제를 선택하고 지금도 50%가 동조한다고 하는가?

이념과 사상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노력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신세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 합류는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 민족의 동경의 대상, 세상의 인도자가 되려면 정신문명이 발전해야 한다.

지난 70년간의 경제 성장, 외적 성장, 그러나 이념과 사상은 퇴보

심지어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보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좌파 파퓰리즘에 빠져서 표만 되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데 가장 앞장을 선 자들, 그러고도 잘못을 모른다.

반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한 몫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면역 체계, 에이즈라는 병, 에이즈 자체로 죽지 않는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므로 외부 침투에 의해 사망한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면역 체계인데 이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렸다. 목사들의 다수가 좌파

미국의 기독교(침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이 영이 들어가면 사람의 정신세계가 변한다.

어떻게, 보수주의자로. 왜, 성경이 보수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 없다. 교회 내에 그런 사상이 파급되면 막으려고 한다.

사상이 빈곤하면 국가가 표류한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국가가 망한다.

오늘은 러셀 커크의 대표작 〈보수의 정신〉을 소개하려 한다.

1953년 출간, 베스트셀러, 미시간 주립대학 역사학 강사, 〈열차 기관사의 아들, 만만치 않는 지성을 겸비한 사람, 생물학적 사고로 태어난 사람, 어마어마한 문장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

커크의 말: “이 책은 우리 문명의 정치적이고 정신적이며 지적인 전통을 지켜내려는 우리의 노력에 바치는 나의 헌신이다. 현대인의 정신을 구해내려면 바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책 소개: 10-11쪽, 21쪽, 33쪽, 44-45쪽

보수의 10대 원칙: 〈보수의 정신〉 부록

보수주의는 이념이나 종교가 아니다.

보수주의는 정신의 상태이며 문명사회의 질서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보수적 인간은 무질서와 어둠보다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10가지 원칙은 현시대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신념이다.

1. 보수주의자는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즉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인간을 위해 그 질서를 만들었다. 인간도 그 초월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으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기독교 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죄성, 탐욕, 우상숭배, 시기, 질투, 동시에 선을 추구하는 것, 영원을 추구하는 것 등) 불변.

인간의 내부에 박힌 도덕적 진실은 영원하다.

질서는 조화를 의미한다: 영혼의 내적 질서, 공동체(국가와 교회 등)의 외양적 질서

이런 질서가 있으므로 1.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2. 정의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3. 법을 지킨다.

때 법으로 광장으로 밀고나가는 것은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나쁜 사회이다. 저급한 사회

2. 보수주의자는 관습, 널리 오랫동안 합의된 지혜(convention), 계속성을 중시한다.

오래 지켜진 관습이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관습의 파괴자는 그들이 알거나 희망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부수어 버린다.

"성공적인 혁명가들이 오래된 관습을 철폐하고, 널리 오래 합의된 지혜를 조롱하고, 사회 제도들의 계속성을 파괴했을 때 곧바로 새로운 관습과 계속성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그 새로운 수립 과정은 고통스럽고 느리다. 또 그 결과로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는 급진주의자들이 지상의 천국을 수립하려는 열정 때문에 부실했던 구질서보다 훨씬 더 열등하다."

즉 신중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예멘 난민 문제, 신중하게 생각한다.

3. 보수주의자는 규범이라는 원칙을 믿는다.

"보수주의자는 현대인이란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라고 믿는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오랜 기간 관습으로 굳어진 규범의 중요성을 매우 자주 강조하여 인간의 정신이 반대로 달려가지 않도록 한다."

동성애 부정

4. 보수주의자는 신중함이란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보수주의자는 자유주의자나 급진주의자들이 신중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거해 버리려 희망하는 악덕보다 더 나쁜 새로운 폐해가 등장할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목표만을 향해 질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먼저 결과를 가름해 보고 심사숙고 한 뒤 행동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라. 수많은 거짓 뉴스, 지금이야 비로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말한다. 특히 자영업자들

북한과의 협력, 스스로 무장해제 하면 안 된다.

5. 보수주의자는 다양성의 원칙을 중시한다.

"어떤 문명에서도 건강한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질서와 계급, 물질적 조건의 차이,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이 살아남아야 한다. 오직 유일한 형태의 평등은 신의 심판 앞에서, 또 공명정대한 법원 앞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 밖에 모든 평등화의 시도는 기껏해야 사회적 정체로 이어질 뿐이다." 그래서 경쟁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교육을 만드는 것이다.

도태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 본질과 부작용을 판단할 줄 안다.

6.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원칙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억제한다.

“인간의 본성은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중재한 결점으로 고통을 받는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완벽한 사회 질서를 창조할 수 없다. 보수주의자는 이상향의 추구가 참사로 끝난다고 말한다. 인간은 완벽한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참을 만하게 질서가 잡혀 있으며,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서 어느 정도의 악과 사회적 불균형, 고통이 계속 존재하는 곳이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 마귀의 작품

구 소련,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를 보라.

7.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와 재산권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확신한다.

“사적인 소유에서 재산권을 분리해 버리면 거대 중앙 정부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이 된다. 위대한 문명은 사유재산권을 토대로 수립된다. 사유재산권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수록 공동체는 더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다. 경제적 평준화는 경제적 진보가 아니라고 보수주의자들은 굳게 믿는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유 재산권 인정 강조하는 분, 재산권 강쇠 좋은 나라 소득 주도 성장, 반기업 정서, 노조 편향적 노사 운영, 노동 개혁이 없이는 어느 나라도 성공할 수 없다.

지금 현기차의 문제, 대다수 기업의 문제, 상속세를 60% 내면 기업을 잃는다. 국가 소유

8. 보수주의자는 자발적인 공동체를 지지하고 강제적인 집단주의에는 반대한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신중하고 유익한 것은 모두 의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주주의라는 추상적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정치적 명령이 공동체의 기능을 대신할 때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파괴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신을 이루는 수많은 작은 공동체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 집중화된 정부, 선택된 관리자들과 공무원들은 아무리 잘 훈련받고 선의를 가졌다 해도 대량의 인구에게 정의와 번영, 고요함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완장을 찬 뒤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법치를 망치게 된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곧 때 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치 무시 행위

9.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격정과 권력을 신중하게 자제해야 할 필요를 인지한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의 의지를 전제 없이 지배하게 되면 전체주의 독재이다. 인간의 본성에 선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는 단순한 호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헌법적 제약, 정치적 견제와 균형, 법률의 적절한 강제, 예로부터 의지와 욕구를 억누르는 억제의 미묘한 그물망 등을 자유와 질서의 도구로 승인한다.”

즉 법치를 존중한다. 탈원전 정체를 보라.

10.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는 활력이 넘치는 사회라면 영속성과 변화를 반드시 인정하고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는 사회 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진보를 선호한다. 진보를 무작정 숭배하는 것은 반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새 것이 무조건 예 것보다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 육체에 변화가 필수적이듯 사회 체제에도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보수주의자는 추론한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 몸은 죽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육체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변화는 그 육체의 본질이나 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규칙적인 태도로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괴물 같은 성장, 그 육체를 삼켜버리는 암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책 신명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네가 있기 전의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신4:32), 기억하라. 기억하라.

유대인들의 예(율1:3),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에 기반을 두어서 미래를 펼쳐야 한다. 나를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이 보수주의자들의 관저이며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다.

아이들을 보수주의적으로 키워야 한다.

어른 공경, 미풍양속 존중,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존중,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 약자 배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음 인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절대로 떼 법 쓰지 않는다. 여기서 안 풀리면 천국에서 풀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나의 발전 기회로 삼고 부모나 사회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희생자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로 보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산다.

이러한 가치가 바로 성경의 가치이며 이를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말한다.

국가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

대하7: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